

단일화는 없었다...투표율 대박 '빅3' 누가 웃을까

〈이준석·나경원·주호영〉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 50% 전망 당권주자들 마지막 지지 호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당권주자들은 10일 막판 총력을 펼쳤다. 무엇보다도 단일화나 중도 사퇴 없이 당대표 후보 5명이 모두 완주한 가운데 최종 당원 투표율은 예상을 웃돈 50%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시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심을 좌우하는 데는 단순히 '바람' 외에도 후보의

조직력이나 출신 지역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만으로 선별리 유효성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 당심마저 빨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감지된다.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32만800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의 조직력이나 메시지가 닿는 핵심 당원을 보통 1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최종 투표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나머지 6만여 명이 부동표로 분석된다. 이들 표심이 이준석 후보로 상징되는 '파격적 변화'를 택하느냐, 나경원·주호

영 후보의 '안정과 경륜'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10일 "현재까지 이 후보가 유리한 것은 맞지만,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이 후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당원 표도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도 다른 후보들 쪽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일반시민 여론조사는 이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이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세 건의 방송 출연으로 '공중전'을 펼쳤다. 그간 발신했던 세대교체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높은 당원 투표율이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대선 승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

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이 아닌 안정을 택해달라. 분열이 아닌 통합에 손을 들어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했다.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당심을 자극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나 후보는 자신이 19년 전 한나라당을 택한 이유가 "자유와 법치를 믿었기 때문"이라며 "당이 없어질 위기에 우리당을 지켰다. 다 찢기고 무너지고 뜯어질 때 당원과 함께 기동만은 붙잡고 지켰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

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군 제도 개선 미흡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인상을 풍겼다. 이번 사건이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나아가 안보 이슈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민심과 당심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나경원·주호영 후보가 결국 단일화를 하지 않은 채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중진 표'가 분산돼 결과적으로 이 후보에게 더 유리한 싸움이 됐다는 분석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두 후보가 단일화했다면 명분도 떨어지고, 온갖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필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긴다

감사원 조사 불발에 입장 변경

국민의힘은 10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

장을 밝힘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르면 내일이라도 권익위에 가서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

찰 권한이 없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전달해줌에 따라 권익위 의뢰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에 다시 조사를 맡길 경우 '꼼수'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수석은 "권익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면서도 "시간 끌고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권익위 의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35% 최고치...이재명 23%, 이낙연 9.7%

리얼미터 대권 지지를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었다. 10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8월 이틀간 만 18세 이상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1%로 기존 최고치(3월 34.4%)를 경신했다. 또 이전 조사 시점인 2주 전보다 4.6%포인트 올라 두 달간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윤 전 총장의 사실상 첫 공개 행보인 지난 9일 우당 기념관 개관식 참석 이전에 이뤄진 조사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주말 현충원 방문,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만남 등 호국·보훈 행보에 대한 언론 노출 효과는 조사에 반영됐다"며 "공개 활동 폭이 넓어지면 그의 지지율도 본격적인 평가 구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1%로 뒤를 이었지만 2주 전보다는 2.4%포인트 하락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9.7%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의원 4.6%, 유승민 전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8%,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 각 2.6% 순이었다. 양자 구도에서도 윤 전 총장의 우위가 이어졌다. 이 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51.2%로, 이 지사(33.7%)를 압도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52.4%, 이 전 대표 30%로 격차가 더 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대선정국에 성큼...野 대안주자로 뜨나

최재형 감사위원장이 대선정국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원장은 29~30일 아시아경제 의뢰로 원지코리안컨설팅이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0%p)에 2.8%의 지지율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0일 통화에서 "(최 원장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9~30일 아시아경제 의뢰로 원지코리안컨설팅이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0%p)에 2.8%의 지지율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최 원장이 야권의 대안주자로 주목받는 배경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공세에 홀로 맞서며 강단과 소신을 보여준 모습이 자리잡고 있다. 판사 시절에도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소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두 자녀를 입양해 제 자식처럼 보살핀 인간적 면모와 독립투사의 후손, 한국전 참전용사인 아버지와 아들까지 3대 병역명문가라는 점은 여야 통틀어 아무도 갖추지 못한 매력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착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옵티머스 부실·한명숙 수사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관리 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1차장검사와 김유철 형사7부장을,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선 조차장을 각각 함께 입건했다.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7호', '2021년 공제8호'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알려진 수사 사건인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사건번호가 '공제4호'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다만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고발인에게 통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고소인·고발인·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행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행체크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을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은 신행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제한적용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행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9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